

'12월 방학' 옛말...광주 초교 '1월 방학' 대세

154곳중 152곳 내달 돌입 최장 55일...봄방학도 사라져 광주시교육청 적극 권장

광주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12월 겨울방학'은 엄마-아빠 학창시절 추억 속 얘기처럼 옛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사립초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초등학교가 12월이 아닌 연초인 1월에 겨울방학에 들어가는 것으로 학사일정을 조정했기 때문이다. 1월 초 시작되는 겨울방학이 3월 초까지 최장 55일간 이어지게 되면서 봄방학(학년말 방학) 역시 사라지고 있다. 12월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초등

학교 154개교 중 단 2곳을 제외한 152개교의 겨울방학이 내년 1월 시작된다. 이르면 1월 4일, 늦어도 11일에는 전체 초등학교가 방학에 들어간다. 지금의 학부모 등 이전 세대들의 겨울방학이 으레 12월 25일 성탄절 이전에 시작됐던 것을 떠올리면 격세지감이다. 겨울방학 시점만 달라진 게 아니다. 초등학교들이 겨울방학을 늦추면서 개학도 봄이 시작되는 3월로 바뀌었다. 방학기간도 짧은 곳이 48일, 대다수 초등학교는 무려 50-55일간 겨울방학이 이어진다. 자연스럽게 학년 중입학·학교 졸업식은 겨울방학에 들어가는 1월 초에 열린다. 봄방학이 사라진 것은 물론 개학하면 곧장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된다.

사립학교인 살레시오초·송원초는 여전히 '12월 겨울방학', '2월 봄방학'을 고수하지만, 이 학교들 역시 머지않아 1월 겨울방학이라는 대세에 올라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올 학기 초 관내 학교에 '12월 겨울방학' 대신, '1월 겨울방학'을 권고하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겨울방학 기간을 조정해 학생들이 방학 동안 자기계발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조치였다. 효율적인 학습 운영과 새 학기 준비, 교육과정과 감사 및 회계기간 일치 등을 위해 겨울방학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교단의 의견도 반영됐다. 시교육청은 '초·중등학교 방학 불일치로

불편하다'는 학부모들 바람에 따라 같은 내용의 공문을 중·고교에도 하달했다. 중학교의 경우 상당수 학교가 학사일정을 조정해 초등학교와 방학기간을 맞췄으나 고교는 변화가 더디기만 하다. 초·중학교와 달리 고교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학부모 요구가 보다 다양한 단 시간에 교육청 권고대로 겨울방학 기간 조정 등 학사일정을 바꾸는 게 쉽지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건학이념이나 교육과정 등 학교별 특성이 제마다 다른 사립학교가 적지 않은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전남 초·중·고 대다수는 여전히 12월 하순에 겨울방학을 시작한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고사리 손으로 모은 '사랑의 저금통' 12일 광주시 북구 중흥3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꼬마박사어린이집 원생들이 '사랑의 돼지저금통'을 개봉하고 있다. 돼지저금통에 담긴 돈은 지난 주말 열린 토요일을 장터 수익금을 모은 것으로, 지역 경로당에 전달될 예정이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광주교육청 감사 거부 사립유치원 4곳 검찰 고발

출입 막고 자료 제출 거부 "재정지원 중단 등 조치" 경고

광주시교육청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감사에 비협조적인 사립유치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령에 따른 감사에도 일부 사립유치원이 '자료제출 거부·감사 인력 출입 저지'라는 적반하장식 태도로 일관하면서 감사 기능을 마비시킨 데다 이러한 움직임에 동조하는 유치원들이 속속 생겨나는데 따른 조치다. 시교육청은 감사 거부라는 초법적 행위가 지속될 경우 유치원 정원 감축, 원장 기본급 보조금 및 학급운영비 지원 중단 등 행정·재정적 제재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도

내놓았다. 시교육청은 12일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등 감사를 거부한 4개 사립유치원을 이날 오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10월부터 전체 172개 사립유치원 중 최근 감사를 받지 않거나 비리 의혹 등 민원이 접수된 유치원에 대해 집중 감사를 하고 있다. 이날 현재 16곳에 대해 현지 감사를 했지만 4곳은 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감사가 지연되고 있다. 남구 방림동 모 유치원은 설립자가 건물 관리 책임자임을 내세워 감사 담당 공무원의 출입을 막았다. 서구 화정동·남구 봉선동·광산구 박호동에 있는 유치원 3곳은 회계 통장이 아닌 설립자 또는 그 지인 등의 계좌로 교육비를 받은 사실이 일부 확인됐지만, 전체 자료 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않

았다고 교육청은 전했다. 교육청이 검찰 고발과 함께 제재에 들어갈 경우 고발된 유치원(원아 규모 100~200명)들은 원장 기본급 보조비 중단(월 46만원), 방과후 운영보조금 중단(월 30만원), 학급운영비 중단(월 250만원·10학급급 경우), 정원 10% 감축(원비 감소 450만원·10인 감소일 경우)에 따른 유치원비 재정적 손해는 매월 1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일부 유치원이 감사 거부라는 초법적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감사 과정에서 교비 유용 정황이 포착돼 수천만~수억원에 달하는 회계 처리에 놓인다는 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민 분노가 식어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윤상원 민주커뮤니티센터' 광산구 생가 인근에 내년 개관

광주시 광산구가 5·18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상원(사진) 열사를 기리는 기념공간 조성에 들어갔다. 12일 광산구는 "내년 준공을 목표로 예산 5억원을 투입, 윤 열사 생가 인근에 '윤상원 민주커뮤니티센터' (신룡동 590-1번지) 건립 공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5·18민주화운동 50주년을 앞두고 광산구가 추진 중인 '2030 윤상원 기념사업 기본계획'의 하나다. 윤상원 생가와 더불어 윤 열사와 광주 5월 정신을 알리고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다. 건물은 윤상원·신영일·박용준·김영철·박효선·박관현·박기순 등 '들불열사' 7인이 아학당으로 사용된 관전동성당 교리실을 모티브로 설계됐다. 따로 방을 나누지 않고 윤 열사 유품과 초상화, 그림으로 그린 일대기, 5·18 관련 작품 등을 전시할 계획이다. 또 윤상원 कै릭터 등 관광형 상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창작판소리 '윤상원' 학속 교육장과 영상물 홍보관도 운영한다. 센터에는 문화관광해설사 등 1명이 상주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는다. 한편, 윤 열사는 시민군 대변인이자 항쟁 지도부 홍보부장을 맡은 5·18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마지막까지 도청을 사수하다가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의 진압작전 때 희생당했다. /최승철 기자 srcho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2 해질 17:21 달돋이 11:44 달질 22:37

비람 강해 추워요
구름많고 늦은 오후 동부내륙 눈 오는 곳 있겠다.

| | | | | | |
|----|-----------|------|-----|-----------|------|
| 광주 | 구름많음 | -2/7 | 보성 | 구름많음 | -4/7 |
| 목포 | 구름많음 | 1/7 | 순천 | 구름많음 | -2/8 |
| 여수 | 구름많음 | 0/7 | 영광 | 구름많음 | -3/6 |
| 나주 | 구름많음 | -3/8 | 진도 | 구름많음 | 1/7 |
| 완주 | 구름많음 | 1/9 | 전주 | 구름많음 | -2/6 |
| 구례 | 구름많고 한때 눈 | -4/6 | 군산 | 구름많음 | -2/5 |
| 강진 | 구름많음 | -2/8 | 남원 | 구름많고 한때 눈 | -5/5 |
| 해남 | 구름많음 | -2/7 | 흑산도 | 구름많음 | 4/8 |
| 장성 | 구름많음 | -3/7 | | | |

◇바다 날씨

| | 오전 | | 오후 | |
|--------------|------|---------|------|---------|
| | 풍향 | 파고 (m) | 풍향 | 파고 (m) |
| 서해 앞바다 | 서~북서 | 0.5~1.0 | 북서~북 | 1.0~2.0 |
| 남해 앞바다 | 서~북서 | 1.0~2.5 | 북서~북 | 2.0~3.0 |
| 남해 서부 앞바다 | 북서~북 | 0.5~1.0 | 북서~북 | 0.5~1.5 |
| 남해 서부 앞바다(동) | 북서~북 | 1.0~2.0 | 북서~북 | 1.5~2.5 |
| 남해 서부 앞바다(서) | 북서~북 | 1.0~2.5 | 북서~북 | 1.5~2.5 |

◇생활지수

| | |
|------|----|
| 눈음 | 높음 |
| 뇌졸중 | 높음 |
| 감기 | 보통 |
| 미세먼지 | 보통 |

◇물때

| 목표 | 간조 | 만조 |
|----|-------|-------|
| | 10:34 | 05:14 |
| | 23:24 | 17:56 |
| 여수 | 05:55 | 12:37 |
| | 18:58 | --:-- |

◇주간 날씨

| 14(금) | 15(토) | 16(일) | 17(월) | 18(화) | 19(수) | 20(목) |
|-------|-------|-------|-------|-------|-------|-------|
| ☀ | ☁ | ☁ | ☁ | ☀ | ☀ | ☁ |
| -3/5 | -2/7 | 0/8 | 1/8 | 0/9 | 1/9 | 0/8 |

이주 노동인권 네트워크 준비 토론회...오늘 광주시청

광주·전남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이주 노동인권 네트워크' 설립이 추진된다. 광주민주의집·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등 8개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는 "13일 오후 2시 광주시청 1층 행복나눔공감실에서 이주 노동인권 네트워크 준비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공광·미안마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참석해 직접 인권실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연합단체를 만들기에 앞서 이주 노동인권단체 상담사례, 이주노동자 노동실태를 알리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 이들은 1993년 산업연수생 제도,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일하고 있지만 산업재해·체불임금·열악한 주거 환경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조업 불법파견이 만연해 광주·전남지역 이주노동자들의 현황 조사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들은 광주지역에만 1만 4000여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상승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전국 일제단속

행정안전부가 광주·전남 등에서 자동차세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승 체납한 차량을 단속해 번호판을 일제히 영치하는 '상승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13일 운영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 체납이 있는 대포 차량이다. 단속

태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 50KW 월 135만원 예상

땅+건물+태양광 년12% 수익 자금대출가능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분양지역: 영광, 영암, 완도, 진도

- ▶ 한전과 20년 장기계약 안정적 투자
- 모듈: LG·한화큐셀 고효율 단결정
- 인버터: 이태리ABB, 독일카고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분양 임대 1899-8947

300여평 초대형 이마트 에브리데이

분선동 남부경찰서 바로 옆 용산지구 4,000여 배후세대 상권!!

| | | |
|--|--|---|
| 건우 New Squa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확정▶ 리빙코리아 입점확정▶ 커피전문점 입점확정▶ 네일아트, 속옷 매장 입점확정 | 용산타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의점, 돈까스전문점, 치킨오프, 이동통신 등 업종 선입대 완료▶ 멀티역세권, 교통망확보▶ 2~4층 주차타워! 총 77대 확보 | 조은프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산지구 리스빌 정문, 모아엘가 후문, 대성베르빌 정문 바로앞 상가▶ 상가건물 3면 도로와 인접▶ 상층부 상가건물의 희소성 |
|--|--|---|

시행 | (주)SB빌딩 | (주)성원 | (주)조은플러스
시공 | 기보종합건설